

2019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정답

1	①	2	④	3	②	4	②	5	④
6	②	7	⑤	8	③	9	④	10	②
11	②	12	①	13	④	14	⑤	15	⑤
16	③	17	①	18	②	19	③	20	③
21	②	22	④	23	③	24	⑤	25	③
26	④	27	⑤	28	⑤	29	④	30	①
31	①	32	①	33	③	34	①	35	①
36	⑤	37	②	38	④	39	⑤	40	②
41	④	42	①	43	③	44	③	45	⑤

해설

1. [출제의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한다.

발표자는 발표를 시작하면서 청중에게 지난 체험 학습 때 생태 공원에서 함께 시정했던 다큐멘터리를 기억하는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처럼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환기한 후, 자신의 발표 내용과 연결 지어 생태 복원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지난 과학 시간에 굴이나 홍합이 자연의 방파제 기능을 하면서 물을 정화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배웠던 경험을 환기하는 질문을 던진 후에, 자신이 소개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굴의 서식지를 복원하여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발표 내용과 연결 짓고 있다.

2.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을 파악한다.

㉠은 발표자가 소개하는 프로젝트에서 대규모 굴 서식지를 조성하고 있는 곳이다. 발표자는 ㉠을 가리키며 굴 서식지가 만들어지면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새롭게 조성되는 생태계를 보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오답풀이] ① ㉠은 □□ 도시의 운하이다. 발표자는 ㉠을 가리키며 운하가 만들어져 물이 잘 순환되지 않아 오염되었다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② 발표자는 ㉠을 가리키며 ‘떠 있는 용승 시스템’의 어린 굴을 키우는 기능과 함께 장치의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③ 발표자는 발표 끝부분에서 ㉠을 가리키며, 이곳에 대규모 굴 서식지가 조성되면 굴을 비롯한 다양한 수중 생물들이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할 것이라는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⑤ ㉠은 범람이 잦은 지역이다. 발표자는 ㉠을 가리키며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이 지역은 파도에 의한 물의 범람이 없어지고 깨끗한 물로 둘러싸인 쾌적한 환경이 될 것이라는 기대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3. [출제의도] 듣기 전략을 파악한다.

학생 2는 발표를 통해 도시 가까이에 생태계를 복원하여 친환경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을 알게 되어 좋았다고 하며, 굴이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학생 1은 발표를 들으며 그 내용과 관련하여 △△ 나라의 맹그로브 숲이 파괴되어 해일이 심해졌다는 사례를 떠올리고 있다. ③ 학생 3은 운하가 만들어져 물이 잘 순환되지 않는 문제의 해결에 대한 내용을 발표자가 언급하지 않은 점에 대해 발표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아쉬웠다고 부정적으로 평가

하고 있다. ④ 학생 1은 굴 구조체 프로젝트가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방안이 된다는 점을 알게 되어 유익했다고 하여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학생 2는 도시 가까이 생태계를 복원하여 친환경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을 알게 되어 좋았다고 하여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⑤ 학생 2는 발표한 내용 중 굴이 오염된 물을 정화한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그 효과가 미미하지 않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학생 3은 발표한 내용 중 대규모 굴 서식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하여 경제성이 낮은 것은 아닐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4. [출제의도] 회의 참여자의 발화 의미와 기능을 이해한다.

학생 2는 본문의 처음 부분에 학생들이 선정한 급식 메뉴와 제공 날짜를 밝히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학생 3이 그것보다는 행사가 실시되는 취지를 먼저 제시하자고 제안하고 학생 1도 이러한 제안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자 학생 2는 이를 수용해 먼저 학생들이 급식 메뉴를 선정하게 된 취지를 밝힌 후, 선정된 급식 메뉴와 제공 날짜를 밝히자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은 내용 구성에 대해 논의하며 드러난 쟁점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본문의 처음 부분에 구성될 내용에 대해 학생 1, 3과 협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에서는 급식 메뉴를 학생들이 직접 선정하는 행사에 대한 기사를 쓰기로 결정했던 지난 회의 결과를 환기하며, 이번 회의에서는 기사의 내용 구성에 대해 논의하자고 언급하고 있다. ③ ㉠에서는 기사문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급식 메뉴를 선정하게 된 과정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를 의문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④ ㉠에는 앞으로 급식 메뉴를 선정하게 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급식 메뉴 선정 방법을 그 과정에 따라 서술하자는 내용이 제안되어 있다. ⑤ ㉠에는 학생 1이 학교 급식 영양 기준에 대해 조사하여 그것에 대해 알고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생 3이 언급한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5. [출제의도] 담화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이해한다.

[A]에서 학생 2는 학생 3의 제안과 학생 1의 말을 듣고 기사의 핵심 내용이 강조되는 효과에 대해 언급하며 그 내용을 수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B]에서 학생 2는 학생 3이 말한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이 설득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언급하며 그 내용을 수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A]에서 학생 1은 학생 3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그래, 좋은 생각이야.”라고 반응하고 있으므로 학생 3의 제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볼 수 없다. ② [A]에서 학생 3은 본문의 처음 부분에, 선정된 급식 메뉴와 제공 날짜를 제시하자는 학생 2의 의견이 지닌 문제점을 언급하며 행사의 취지부터 언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생 3은 학생 2의 의견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자신의 의견과 절충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③ [B]에서 학생 3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과 그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쓰자는 학생 2의 의견에 대해 기사문의 통일성을 해친다며 반대하고 있다. ⑤ [B]에서 학생 1은 학생 3이 언급한 내용과 함께 학생들의 급식 메뉴 선정 횟수를 늘릴 수 있다는 계획을 덧붙이자고 하였을 뿐 학생 3이 제안한 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덧붙이고 있지는 않다.

6. [출제의도] 글에 반영된 글쓰기 계획을 파악한다.

(나)에는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메뉴 선정 과정의 어려움만 제시되어 있을 뿐, 행사의 효과를 부각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나)의 부제에는 학생들이 직접 급식 메뉴를 선정하는 행사의 취지로 급식 만족도를 높이고 찬반을 줄인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③ (나)의 본문 3문단에는 현재 매월 1회인 학생들의 급식 메뉴 선정 횟수를 늘릴 계획이 있으며, 그런 이유로 급식 메뉴를 직접 선정하는 행사에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④ (나)의 본문 2문단에 급식 메뉴를 선정하는 학생 선정 방법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으며, (가)에서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하는 학생 선정 방법에 대해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나)의 본문 1문단에서 선정된 급식 메뉴와 제공 날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가)에서 선정된 급식 메뉴와 제공 날짜를 밝히면 학생들이 기사 내용에 주목할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7. [출제의도] 조건을 참고하여 글의 내용을 수정·보완한다.

<보기>의 학생 1은 기사문에 포함하기로 했던 내용 중 급식 메뉴 선정 과정의 어려움과 그 이유가 잘 드러나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 학생 2는 학생 1의 말에 동의하면서 맥락에 맞게, 급식 메뉴 선정 과정에 참여한 학생의 말을 인용해 수정·보완하자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선호와 학교 급식 영양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급식 메뉴를 선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내용으로 급식 메뉴 선정 과정의 어려움과 그 이유를 제시한 ⑤가 수정·보완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급식 메뉴를 선정하는 일이 막연히 어렵다고 제시했을 뿐 무엇이 어려운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수정·보완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② 선정된 급식 메뉴가 학교 급식 영양 기준과 학생 선호를 모두 반영한 것이라는 내용만 있을 뿐 그러한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그 이유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수정·보완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 학교 급식의 단가와 관련한 내용은 글의 맥락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급식 선정 과정의 어려움과 그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정·보완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④ 영양사 선생님의 노고와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 뿐 급식 선정 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의 어려움과 그 이유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수정·보완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8.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을 파악한다.

㉠에서 일부 학생들은 드론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을 궁금해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에서 ㉠을 고려해 드론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기술적 원리와 한계에 대해 설명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사전 규제 방식과 사후 규제 방식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을 고려해, 1문단에서 사전 규제 방식과 사후 규제 방식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② 2문단에서 ㉠을 고려해, 드론이 카메라나 통신 장비를 장착하고 있고 소형화, 경량화되고 있어 정보 수집에 용이하다는 드론의 특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④ ‘나’는 사전 규제 방식에 찬성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와 상반된 견해를 가진 학생들도 있다는 ㉠을 고려해, 3문단에서 사생활 침해와 개인 정보의 의도적 악용 등 사후 규제 방식을 도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⑤ 4문단에서 ㉠을 고려해, 사후 규제 방식을 도입하는 입장에 대해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개인의 기본권을 등한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

점을 지적하고 있다.

9. [출제의도] 자료 활용 전략을 파악한다.

학생의 초고에서는 ㉔의 사전 규제 방식을 선택하여 개인 정보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3문단에서 사생활 침해, 개인 정보의 의도적 악용 등 개인 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제시하고 있으나, 개인 정보 침해를 예방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강조한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㉔를 구체화하여 3문단에서 인명 구조, 시설물 점검 등의 공공 분야와 제조업, 물류 서비스 등 민간 분야까지 드론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② ㉔를 토대로 2문단에서 드론이 소형화, 경량화되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였다. ③ ㉔에 해당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기본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5문단에서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제시하며 개인의 기본권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⑤ ㉔를 참고하여 4문단에서 사전 규제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정보 수집과 활용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편의성을 높여 드론 기술과 산업의 발전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하였다.

10. [출제의도] 비판적 관점에서 반박하는 글을 쓴다.

<보기>에서는 사후 규제 방식을 도입하면서도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예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와 같은 처벌을 들었다. [A]에서는 사후 규제 방식을 도입하면 사생활 침해와 개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고 하여 사후 규제 방식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에서 근거를 찾아 [A]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쓴다면, 개인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사후 규제 방식을 허용하되 엄격한 기본권 보호 방안으로 개인 정보의 불법적 이용을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개인의 동의를 구한 상황에서 개인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은 사전 규제 방식에 해당하므로 <보기>에서 근거를 찾은 것이 아니며, [A]와 유사한 입장에 해당한다. ③ 드론 활용 범위를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나 개인 정보 침해 종류에 따라 처벌하자는 것은 <보기>를 근거로 [A]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 ④ 사전 규제 방식을 도입하되 규제를 완화하면 그로 인한 피해가 증가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보기>에서 근거를 찾은 것도 아니며, [A]에 대한 반박으로 볼 수도 없다. ⑤ 사전 규제 방식과 사후 규제 방식을 절충하면서 개인 정보 수집과 활용을 규제하여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보기>를 근거로 [A]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이 아니다.

11. [출제의도] 음운 변동 현상을 이해한다.

축약이란 두 개의 음운이 합쳐져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국어에서는 ‘ㅎ’과 예사소리 ‘ㄱ, ㄷ, ㅂ, ㅈ’이 만나면 거센소리로 축약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보기>의 밑줄 친 ㉔은 그중에서도 용언의 어간 말음 ‘ㅎ’ 뒤에 예사소리 ‘ㄱ, ㄷ, ㅈ’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일어나는 축약을 가리키고 있다. ②에서 어간 ‘놓-’과 어미 ‘-기’가 결합하여, 용언 어간 말음의 ‘ㅎ’과 어미의 ‘ㄱ’이 거센소리로 축약되었다.

[오답풀이] ① ‘한뫼[한목]’을 발음할 때, 종성에 있는 자음군에서 자음 하나가 탈락하므로 ㉔이 일어난다. ③ ‘끓지[끓치]’를 발음할 때, 용언 어간 말음의 ‘ㅎ’과 뒤에 오는 어미의 ‘ㅈ’이 ‘ㅊ’으로 축약되므로 ㉔이 일어난다. ④ ‘값할[가팔]’을 발음할 때, 종성의 자음군에서 자음 하나가 탈락하므로 ㉔이 일어난다. ‘ㅂ’과 ‘ㅎ’의 축약이 일어나지만 용언 어간 말음 ‘ㅎ’ 뒤에 ‘ㄱ, ㄷ, ㅈ’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일어나는 축약은 아니다.

12.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체인을 이해한다.

㉔에서는 ‘하늬’에 조사 ‘이’가 붙어 ‘하늘히’로 연음되었으므로 음운의 개수에 변동이 없다. 그러나 ㉔에서는 ‘하늬’의 말음인 ‘ㅎ’과 뒤에 오는 ‘도’의 ‘ㄷ’이 ‘ㅌ’으로 축약되어 ‘하늘토’로 나타났으므로, 음운의 개수가 줄어들었다.

[오답풀이] ② ‘하늬’와 ‘하늘’ 모두 ‘ㅎ’은 실현되지 않았으며, ‘하늬’는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③ ‘하늘토’에서 ‘ㅌ’은 ‘하늬’의 말음인 ‘ㅎ’과 뒤에 오는 조사 ‘도’의 ‘ㄷ’이 축약되어 나타난 것이므로, ‘ㅎ’의 존재를 알 수 있다. ④ ‘하늬’는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한 것으로, ‘ㅎ’이 실현되지 않았다. ⑤ ‘하늬’에 조사 ‘도, 과’가 결합하면 ‘ㅎ’과 ‘ㄷ, ㄱ’이 축약되어 ‘하늘토, 하늘과’로 나타났다.

13. [출제의도] 형태소와 단어의 개념을 파악한다.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형태소라고 한다. 형태소는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뉘고, 실질적 의미의 유무에 따라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뉜다. 밑줄 친 ‘물-/물-, ‘-있-/있-, ‘는/은’은 모두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는 의존 형태소들이다. 또한 이들은 음운 환경에 따라 형태가 바뀐다. ‘물-’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 나타나고, ‘물-’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 나타난다. 어미 ‘-있-/있-’은 어간 끝음절의 모음에 따라 형태가 바뀌고, 조사 ‘는/은’은 결합하는 앞말의 끝음절에 받침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형태가 바뀐다. 그리고 ‘-있-/있-, ‘는/은’은 실질적 의미 없이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식 형태소이고, ‘물-/물-’은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실질 형태소이다.

14. [출제의도] 사전을 통해 어미의 쓰임을 이해한다.

‘흰 눈이 내립니다.’에서 ‘흰’의 ‘-ㄴ’은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이므로 ‘-ㄴ’ ㉔의 예문으로 추가해야 한다.

[오답풀이] ① ‘간다’를 보면 ‘-ㄴ-’은 종결 어미 ‘-다’의 앞에 붙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짠’의 ‘-ㄴ’과 ‘유명한’의 ‘-ㄴ’은 뒤에 다른 어미가 붙을 수 없다. ② ‘간다’는 ‘가신다’로, ‘짠’은 ‘짜신’으로, ‘유명한’은 ‘유명하신’으로 쓸 수 있다. ③ ‘짠’은 ‘웃’을 수식하고, ‘유명한’은 ‘성악가’를 수식하는 관형어 구실을 하고 있다. ④ ‘간다’와 ‘유명한’은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짠’은 과거 시제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15. [출제의도] 문장의 구조를 이해한다.

㉔에서 ‘장애물 달리기’는 명사절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은 없다.

[오답풀이] ①, ② ㉔에서 ‘그 사람이 범인임’은 주어의 기능을 하는 명사절이고, ‘그’는 ‘사람’을 수식하는 관형어이다. ③ ㉔에서 ‘부상을 당한’은 ‘선수’를 수식하는 관형절이고, ‘부상을 당한’에서 주어는 생략되어 있다. ④ ㉔에서 ‘성적이 많이 오르기’는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고, ‘많이’는 ‘오르기’를 수식하는 부사어이다. ㉔의 안긴문장 속에는 부사어가 없다.

[16~21] (인문과학 복합) 한영호 외, ‘세종의 역법 제정과 『칠정산』’

이 글은 조선의 역법 확립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세종은 조선만의 교식 후보 방법을 찾고자 노력했고, 오랜 시간 연구한 결과로 『칠정산 내편』을 편찬할 수 있었다. 세종은 조선의 독자적 역법이라 할 수 있는 『칠정산 내편』의 효용성을 살피기 위해 앞으로 일어날 교식을 미리 후보하여 『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 가령』을 편찬했다. 이후 새로운 계산법으로 이전에 있었던 교식을 후보하여 『교식 후보법 가령』이 편찬되었다. 두 가령은 공통적으로 ‘가감차 방식’을 사용했지만, 계산식이 약간 달라 후보 시각에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확립된 조선의 역법은 이후 일본이 독자적인 역법을 만드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16. [출제의도] 글의 전개 방식을 파악한다.

이 글은 먼저 『서경(書經)』의 ‘관상수시’라는 말을 활용해 역법에 대한 유교적 관점을 드러내고, 조선이 이러한 유교적 관점에 따라 역법을 확립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의 역법이 일본의 역법 확립에 미친 영향을 밝히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이 글은 ‘관상수시’의 뜻을 소개하고 있지만, 고려와 조선이 그것을 어떻게 변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② 이 글은 조선의 역법 발달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만, 동서양 문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천문과 역법의 의미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④ 이 글은 조선의 교식 후보가 중국 천문학 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⑤ 이 글은 교식 후보 방법에 있어 조선이 당시 유럽 천문학보다 우수했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당대에 관측한 값들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단계적으로 검증하고 있지는 않다.

17.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파악한다.

‘관상수시’는 천자에게만 허락된 일이므로 고려는 중국의 역법인 선명력과 수시력을 도입하여 사용하였다. 조선도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중국의 역법인 수시력을 조선의 실정에 맞게 운용하려 하였다. 그러한 노력의 결실인 『칠정산 내편』은 독자적인 역법이라 할 수 있지만, 조선이 역법을 통해 천자를 부정하고 독자적인 정치 이념을 실현했다고 할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② ‘칠정산’은 교식 후보에 필요한 태양과 달의 운동뿐 아니라, 다섯 행성의 운동도 계산했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조선에서는 교식 후보 외에 여러 행성들의 운동도 역법에 담으려 했다. ③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서는 역법의 운용과 역시 발행을 중요한 국가 통치 행위로 여겨 국가 주도로 역법의 연구를 수행했다. ④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역법은 천체의 변화를 이해하여 하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⑤ 조선은 『칠정산 내편』 등의 역법 확립으로 유교적 이념을 만족스럽게 실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고 자부했다.

18.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가)는 ‘이전에는 선명력을 썼기 때문에 오차가 꽤 많았’지만, ‘수시력법을 연구’한 뒤로는 ‘역서 만드는 법이 어느 정도 바로 잡혔’다고 자부했다가, ‘그러나 이번(세종 12년) 일식의 시작과 끝 시각이 모두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2문단과 관련지어 추리하면 수시력에 통달했다고 자부했다가 교식 후보에 오차가 생기자 그 해결책을 찾고자 연구한 결과로 『칠정산 내편』이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 가령』은 『칠정산 내편』의 효용성을 살피기 위해 편찬되었다.

[오답풀이] ① ‘선명력을 썼기 때문에 오차가 꽤 많았’다고 했는데, 1문단과 관련지어 추리하면 조선에서 교식을 후보할 때 여전히 선명력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나)로 보아 ‘북극출지의 고하’를 정하기 위해 ‘간의’를 ‘나무’로 만들었다가 ‘구리’를 녹여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2문단과 관련지어 추리하면 교식 후보의 정확성을 향상하기 위해 천체 관측 기구를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④ (다)로 보아 『칠정산 내편』을 편찬하는 데, 수시력을 참고했음을 알 수 있다. 수시력은 중국의 역법이다. ⑤ (다)의 발문을 쓴 ‘이순지’는 ‘주야각은 각기 근거한 곳에서 추정’한 것이므로 우리나라와는 다르다.’고 했는데, 이를 통해 중국과 조선의 입성이 달랐다는 것을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19.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을 이해한다.

<보기>는 정묘년(1447년) 8월 교식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하지를 지나 동지로 가는 시점이므로 축이며 태양의 실제 위치보다 평균 속도로 운행한 태양의 위치가 더 앞선다. 그러므로 축차이며 음의 값이다. 달이 원지점에서 근지점으로 이동하고 있었다고 했으므로 역시 달의 실제 위치보다 평균 속도로 운행한 달의 위치가 더 앞선다. 그러므로 지차이며 음의 값이다. <보기>에 의하면 정묘년 8월 경삭에서 영축차 값과 지질차 값 모두 음의 값이므로 가감차 값은 양의 값이 된다. 따라서 정삭을 후보할 때 가감차 값을 가차로 삼았을 것이다.

**[오답풀이]** ① 달이 원지점에서 근지점으로 이동하고 있었다고 했으므로 달의 실제 위치가 평균 속도로 운행한 달의 위치보다 뒤쳐져 있었을 것이다. ② 가감차 값에서 두 가령 모두 영축차에서 지질차를 뺀 값에는 차이가 없다. 다만 속도항 값에는 두 가령이 차이가 있다. 『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 가령』은 달의 이동 속도를, 『교식 후보법 가령』은 달의 이동 속도에서 태양의 이동 속도를 뺀 값을 활용했다. 그러므로 분모에 해당하는 값은 전자가 후자보다 더 크고, 가감차 값은 『교식 후보법 가령』이 더 컸을 것이다. ④ 하지를 지나 동지로 가는 시점이므로 두 가령 모두 가감차 계산에 축차를 사용했을 것이다. ⑤ 지구가 태양과 달 사이에 있을 때는 정삭이 아니라 정망이다.

**20. [출제의도] 구절의 세부적 의미를 이해한다.**

지질차란 달의 실제 위치에서 평균 위치를 뺀 값으로, 근지점에서 지질차의 값이 0이 된다는 것은 달의 실제 위치와 평균 위치가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답풀이]** ① 세종은 수시력에 통달했다고 자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식 후보에 오차가 생기자, 교식 후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한양에서의 주야각 입성을 후보하려 했다. ② 북반구에서 태양은 동지 즈음에 가장 빠르게 운행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낮의 길이와 공전 속도가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④ '질차'는 양의 값을, '지차'는 음의 값을 가진다. ⑤ 달이 태양보다 같은 방향으로 더 빨리 이동하므로 『교식 후보법 가령』의 속도항 값은 음의 값을 가질 수 없다.

**21. [출제의도]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이해한다.**

① '통달'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의 이치나 지식, 기술 따위를 훤히 알거나 아주 능란하게 함.'이다. ②에 제시된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봄.'은 '통찰'의 사전적 의미이다.

**[22~26] (사회) 박승룡, '주식회사법'**

이 글은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인 자본금, 주식, 유한책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주식회사의 자본금과 관련된 원칙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주식회사는 뛰어난 자본 조달력을 바탕으로 하여 오늘날 회사기업의 전형이 되었다. 주식회사는 자본금, 주식, 유한책임을 본질적 요소로 한다.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회사 설립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주식 발행을 통해 조성되며, 주식은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구성하는 단위이다.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출자자가 인수하여 납입한 금액의 총합과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액면주식의 총액은 같은데, 이 금액이 바로 주식회사의 자본금이다. 주식의 소유자인 주주는 유한의 출자 의무를 부담하고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유한책임을 진다. 주식회사는 때때로 경제적 폐해를 초래하기도 하여 주식회사에 대한 법 규정에서는 자본금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마련하고 있다. 자본 유지의 원칙은 자본금이 실제로 회사에 출자되어야 하고, 회사는 자본금에 해당되는 재산을 실질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 불변의 원칙은 자본금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

며 자본금의 변경을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주식회사에 관한 법률을 강행법으로 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22.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파악한다.**

4문단에서 '주식회사에서는 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만이 회사 채권자를 위한 유일한 담보가 된다.'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가 수권자본금의 한도 내에서 채권자에게 채무 이행을 할 의무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3문단에서 '1주의 액면주식은 둘 이상으로 나뉘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 ② 4문단에서 '주식의 소유자인 주주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금액의 비율에 따라 이익배당 등의 권리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23.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2문단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수권주식총수 중 일부의 주식만을 발행해도 되는데, 발행하는 주식은 모두 인수되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주식의 인수란 출자자를 누구로 하는지, 그 출자자가 인수하려는 주식이 몇 주인지를 확정하는 것이다. <보기>의 정관을 보면 갑이 설립하려는 주식회사는 수권주식총수 중 일부인 5천 주만을 발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므로 이 5천 주에 대한 출자자가 확정되면 된다.

**[오답풀이]** ① <보기>의 정관을 보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1만 주이므로 수권주식총수는 1만 주이다. 주식 1주의 금액이 5천 원이므로, 수권주식총수를 통해 수권자본금은 5천만 원임을 알 수 있다. ②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최저 자본금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갑이 1주를 발행하는 것으로 해도 주식회사의 설립은 가능하다. ④ 갑이 정관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이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1주는 5천 원이며, 발행한 주식의 수는 5천 주이다. 그러므로 이 회사의 주주가 인수하여 납입한 금액의 총합은 2천5백만 원이다. ⑤ 2문단에서 '수권주식총수 가운데 아직 발행하지 않은 주식은 추후 이사회 결의만으로 발행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갑이 정관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한 이후의 미발행주식 5천 주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

**24. [출제의도] 핵심 개념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A 회사는 설립 시에 액면가액을 5천 원으로 하는 주식을 1백만 주 발행하였으므로 이 회사의 자본금은 50억 원이다. B 회사의 설립 시 자본금은 25억 원이고, C 회사의 설립 시 자본금은 15억 원이다. A 회사는 50억 원 가운데 25억 원을 B 회사에 출자하였고 B 회사는 25억 원 가운데 15억 원을 C 회사에 출자하였다. C 회사는 15억 원 가운데 10억 원을 A 회사에 출자하였다. 결국 A 회사의 자본금 50억 원이 반복 출자되어 부풀려진 것이다. 따라서 A, B, C 세 회사에 실제로 투자된 자본금의 총합과 서류상 A, B, C 회사의 자본금의 총합은 차이가 있다.

**25. [출제의도] 구절의 세부적 의미를 이해한다.**

㉠은 자본금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며 자본금의 변경을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법률에서는 자본금의 감소에 엄격한 법적 절차를 요구한다. 이는 주식회사가 조래하는 경제적 폐해, 즉 채권자를 비롯한 주식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오답풀이]** ① ㉠은 자본금이 실제로 회사에 출자되어야 하고, 회사는 자본금에 해당되는 재산을 실질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기업의 부실화를 방지한다. ㉡의 목적이 주주의 권한을 확대하는 데 있지 않다. ② ㉢은 자본금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 소액을 가지고 주식회사를 설립하

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④ ㉣, ㉤이 채권자가 주식회사의 자금 운용 내역을 알 수 있게 하지는 않는다. ⑤ ㉠, ㉢은 자본금에 관한 원칙이다. ㉠은 주식회사 간 출자를 반복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은 자본금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6.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한다.**

㉠은 '어떤 과정이나 단계를 겪거나 밟다.'의 의미로, '과정을 거쳐서'의 '거쳐서'가 이와 유사한 문맥적 의미를 가진다.

**[27~29] (현대소설) 이청준, '황홀한 실종'**

'황홀한 실종'은 1976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1970년대 한국 사회에 대한 알레고리의 성격이 짙은 작품이다. 휴직 중인 30대 은행원 윤일섭은 주위 사람들의 권유로 정신과 의사인 손 박사를 찾아오게 된다. 손 박사는 그의 병이 '마음속 쇠창살'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그것을 없애라는 처방을 내린다. 손 박사의 지시에 따라 병이 호전되어 가던 윤일섭은, 어느 날 동물원의 쇠울타리를 보다가 손 박사의 처방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로 인해 윤일섭은 '문안쪽'에 대해 더욱 강한 집착을 보이며 결국 동물원의 쇠울타리 안쪽의 공간까지 넘보게 된다. 윤일섭의 이러한 행동은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자본주의적 질서 안에 순조롭게 안주하고 있지 못한 자아가 체제의 보호 속에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욕망과 불안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7.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파악한다.**

[A]는 전지적인 서술자가 서술의 초점이 되는 인물인 윤일섭의 시선으로 손 박사의 언행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여 그것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이야기 밖의 전지적인 서술자가 사건을 전달하고 있으므로, 이야기 속 서술자의 자기 고백적 진술을 통해 내면이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서술자가 전지적인 입장에서 초점이 되는 인물의 시선으로 사건을 전달하고 있으므로,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 이해에 필요한 단서를 제공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8.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를 파악한다.**

'쇠울타리'가 쾌적한 공간을 독차지하려는 자들을 위해 마련된 '영리한 고안'이라는 것은 윤일섭이 한 생각이다. 윤일섭은 손 박사 역시 쾌적한 공간을 독차지하려는 자들의 하나라고 의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생각이 손 박사의 생각이며 ㉡이 이에 상응하는 처방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손 박사는 윤일섭이 '자신의 사고로는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맥상 그 혼란은 쇠창살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손 박사는 '마음속의 쇠창살'을 부숴 없애라는 처방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② 손 박사는 윤일섭의 교문에 대한 의식의 도착 증세가 그의 직장 생활에 대한 고충담 속에서 더욱 현저하게 드러난다고 보고, 그러한 증세가 모두 '쇠창살'과 관련이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따라서 손 박사는 ㉢과 같은 처방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③ 윤일섭은 손 박사가 '그의 곁에서 내쫓으려는 음흉스런 꾀수'를 가지고 자신을 '쇠창살' 밖으로 내몰기 위해 ㉣과 같은 처방을 내린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④ 윤일섭은 손 박사가 '자신의 쇠창살을 교묘하게 숨기면서 윤일섭 그에게만 그것을 부수라 꿰어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29. [출제의도] 주어진 증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종합적으로 감상한다.**

윤일섭은 자신이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무리에 속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 자신의 모습을 '바깥세

상 구경이나 하면서 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윤일섭은 자신을 과거 자신의 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오답풀이]** ① '비좁고 육중한 은행 문을 용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다행스럽다고 여기는 '윤일섭'은 자본주의 질서 속에서 체제의 보호를 받고 싶어 하는 자아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② 윤일섭은 '승진'을 '더 안전한 이선 삼선'의 자리로 옮겨 앉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바라고 살아왔는데, 이것은 체제의 보호 속에 더 깊이 안주하고 싶은 자아의 욕망과 관련이 있다. ③ 윤일섭은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바깥으로 쫓겨난 채 선택받은 자들의 모욕적인 눈길 속에 우왕좌왕 방향을 계속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마음속에는 자본주의 체제로부터 밀려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윤일섭은 '은행 점포의 좌석 배치'가 '완전한 피라미드 포진'을 이루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은행 안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이 펼쳐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자본주의적 질서를 상징한다.

**[30~33] (기술) 정영곤, 'OTP 인증 기술 최신 동향 및 발전 방향'**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방식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OTP 기술은 크게 비동기화 방식과 동기화 방식으로 나뉜다. 비동기화 방식은 인증 서버의 질의를 받으면 사용자가 OTP 발생기에 질의값을 입력하고 그를 통해 얻은 응답값을 로그인 서버에 입력함으로써 인증받아야 하기 때문에 과정상의 번거로움이 있다. 동기화 방식은 OTP 발생기와 인증 서버 사이에 동기화된 값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방식이다. 이 중 이벤트 동기화 방식은 기술타값과 카운트값을 바탕으로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하며 시간 동기화 방식은 기술타값과 인증 시도 시간을 바탕으로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한다. 이벤트 동기화 방식은 OTP 발생기에서 비밀번호를 생성만 하고 인증하지 않으면 OTP 발생기와 인증 서버 간에 카운트값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다. 시간 동기화 방식은 이벤트 동기화 방식에 비해 입력 시간에 제약이 있어 사용자가 제한된 시간 내에 인증을 완료해야 한다.

**30.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이해한다.**

6문단의 '시간 동기화 방식은 이벤트 동기화 방식에 비해 입력 시간에도 제약을 받는다.'라는 설명에서 ①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2문단에서 비동기화 방식인 질의 응답 방식은 인증 서버의 질의에 대해 OTP 발생기가 생성한 응답값을 사용자가 로그인 서버에 입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③ 1문단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은 고정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고 하였다. ⑤ 2문단에서 질의 응답 방식은 인증 서버가 6자리 수, 즉 질의값을 제시하면 사용자는 질의값과 다른 응답값을 생성하여 로그인 서버에 입력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OTP 발생기에 입력한 임의의 6자리 수는 응답값과 일치할 것'이라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31.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4문단에서 OTP 발생기는 비밀번호를, 인증 서버는 인증값을 생성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⑥에서 생성한 인증값'이라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6문단에서 시간 동기화 방식은 인증 서버와 OTP 발생기 간에 시간 오차가 발생하면 인증에 실패한다고 하였다. ③ 3문단에서 이벤트 동기화 방식은 기술타값과 카운트값을 바탕으로 OTP 발생기는 비밀번호를, 인증 서버는 인증값을 생성한다고 하였다.

**32.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추론한다.**

이벤트 동기화 방식은 OTP 발생기의 기술타값과 카운

트값을 바탕으로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방식이다. OTP 발생기가 비밀번호를 생성할 때마다 카운트값을 증가시키는 이유는 카운트값을 달리하여 일회용 비밀번호를 새롭게 생성하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② 인증 서버는 인증에 성공할 때마다 카운트값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인증 서버의 응답값과 카운트값을 일치시키기 위해라는 이유는 적절하지 않다. ③ 인증에 성공한다고 하여도 기술타값을 동기화한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인증에 실패한다고 하여도 이전 비밀번호를 복원한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2문단에서 질의값은 이벤트 동기화 방식이 아니라 질의 응답 방식에 사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3.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비교하여 파악한다.**

<보기>는 시간 동기화 방식으로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사례를 가정한 것이다. ㉠과 ㉡은 인증 시도 시간이 다르므로 인증 시도 시간과 기술타값을 바탕으로 구하는 r가 서로 달라진다. 그렇다면 r에 대해 함수 f를 n번 수행하여 얻은 값인  $X_n$ 도 서로 다를 것이다.

**[오답풀이]** ① 4문단에서 함수 f는 역연산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방향 함수라고 했으므로  $X_n$ 이 노출되더라도 r를 알아내기는 어렵다. ② r는 사용자의 OTP 발생기마다 고유한 기술타값, 그리고 인증 시도 시간을 바탕으로 구해지는 것인데 ㉠과 ㉡의 인증 시도 시간이 다르므로 r도 다를 것이다. ④ OTP 발생기의 기술타값은 사용자의 신상 정보와 해당 금융 기관의 정보 등이 반영된 고유한 값이므로 사용자 A와 사용자 B는 각자의 OTP 발생기로 인증을 시도하면 서로 다른 값이 생성될 것이다. ⑤ 같은 사용자라 하더라도 인증 시도 시간이 다르므로  $X_{n+1}$ 의 값들은 서로 다를 것이다.

**[34~37] (고전소설) 작자 미상, '김진옥전'**

예정담과 영웅담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작자 미상의 작품이다. 전반부는 남녀 주인공의 결연담을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되고 있으며, 후반부는 남자 주인공의 영웅담을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되고 있다. 이 작품은 남녀 주인공의 결연담을 제시한 후, 주인공의 영웅담을 제시할 때 수중계와 지상계를 넘나들며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상계가 수중계에, 수중계가 지상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그와 같이 연계된 관계를 소재를 활용하여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 특히 김진옥이 수중계에 있는 사건은 지상계에서 그의 부인과 아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는데, 수중계에서 김진옥이 공을 세우고 환대를 받는 것과 달리 지상계에서 그의 부인과 아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는 것이 대비되면서 사건이 흥미롭게 전개되고 있다. 주인공이 용궁에서 나와 장안에 이르러 유 부인을 구하기까지의 과정은 서사의 긴장성을 높이며 이야기를 흥미롭게 전개하고 있다.

**34.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파악한다.**

김진옥은 화산도사가 마련해 준 배를 타고 만리강을 건너 남산을 돌아들어 석교를 지나 중남산을 바라보고 말을 치켜 들어가며 장안 삼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때 김진옥은 그곳에 유 부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순식간에 화살같이 달려들어 유 부인을 구하고 있다. 김진옥은 장안에 이르기 전 유 부인이 있을 곳을 미리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장안에 이르러서야 유 부인이 있는 곳을 알고서 유 부인을 구한 것이다.

**[오답풀이]** ② 김진옥은 유 부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분심이 하늘을 찌를 듯한, 선영 등의 일당을 잡아 죽이려 하되, 일반 대관을 천자의 명령 없이 자진 처치함이 신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그가 유 부인을 해치려 한 선영과 동한 등을 응징하려면 천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음을 나타낸다. ③ 용왕은 김진옥이 수부에 들어와 수부를 보전케 해 준 것에 대해 김진옥에게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용왕은 천자에게 현신을 두신 감사 인사를 글로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글을 써 예단을 봉하여 김진옥에게 주고 있다. 이는 용왕이 김진옥의 공과 관련된 내용을 글로 적어 천자에게 알리려 하였음을 보여 준다. ④ 무사가 달려들어 유 부인을 수레에 태워 처형장으로 데려가려 하니까, 난영은 유 부인을 붙들고 슬피 통곡하며, 유 부인 같은 요조숙녀가 참혹히도 억울하게 죽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을 통해 유 부인이 억울하게 죽을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난영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⑤ 애운을 물속에 넣으려고 잠자간 무사는 애운이 통곡하며 말하자, 애운을 붙잡고 여기고 달래는 말을 하고 있다. 여기서 그가 애운의 처지를 애처롭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35. [출제의도] 구결의 서사적 기능을 파악한다.**

선영과 동한 등이 유 부인을 빨리 죽이라고 재촉하여 무사가 유 부인을 수레에 태울 때, 김진옥은 애운을 데리고 만리강에 다다른다. 그런데 만리강에는 한 척의 배도 없다. 유 부인을 구하기 위해 다급히 장안에 가야 하는 상황인데, 배가 없는 것이다. 이에 김진옥은 사공을 찾았는데, 그 사공은 예부에서 관리를 보낸 만리강에 있는 배 수천 척을 모두 새벽에 띄우기 전에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말해 준다. 유 부인을 다급히 구하려 가야 하는 상황에서 [A]와 같이 유 부인이 있는 곳을 갈 수 없는 상황은 서사의 긴장감을 높여 주는 역할을 한다.

**[오답풀이]** ② [A]에서는 주인공의 심정과 조응하는 배경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③ [A]에서 주인공은 사공을 찾았는데, 이러한 태도가 주인공의 성격을 부각하지 않는다. ④ [A]에는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 간의 갈등 양상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⑤ [A]는 주인공이 다급하게 유 부인을 구하려 가야 하는 상황에서 보다 빨리 가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사건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어떻게 배가 만리강에서 치워졌는지도 사공의 말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사건의 결말을 예고하고 있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36. [출제의도] 작품을 종합적으로 이해한다.**

수중계인 용궁에서 김진옥은 여동빈으로부터 '부채'를, 두목지로부터 '칼'을, 이적선으로부터 '금표통'을 받고 있다. '부채'는 한 번 부치면 운무가 자욱하고, 비 올 때에 부치면 꽃나무 가지마다 만발하게 되는 신이한 능력이 있으며, '칼'은 칼자루에 불을 켜면 밤이 낮 같고 몸에 차면 귀신이 범하지 못하는 신이한 능력이 있다. 그리고 '금표통'은 분주주라는 술이 들어 있는데 천만인이 먹어도 다 없어지지 않는 신이한 능력이 있다. 이들 능력은 김진옥이 수중계를 넘나들 수 있음을 나타내지 않는다. 즉 '부채', '칼', '금표통' 등의 능력으로는 김진옥이 수중계를 넘나들 수 없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용왕이 용신으로 하여금 애운을 살리게 한 것은 수중계의 인물이 지상계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는 수중계와 지상계의 연계성을 강화해 준다. ② 김진옥은 용왕으로부터 받은 '진주'를 활용하여 유 부인을 살리고 있다. 이는 수중계의 신물이 지상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소재를 통해 두 세계의 연계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김진옥은 용왕의 수부를 보전하는 데 공을 세웠다. 이와 같이 공을 세운 사건은 지상계의 인물이 수중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건을 통해 두 세계의 연계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수중계에서 김진옥이 환송을 받는 사건에 이어 지상계에서 애운이

위기에 처한 사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사를 전개하는 것은 애운의 처지를 부각하여 서사의 흥미성을 높여 준다.

**37.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를 비교하여 파악한다.**

㉠에서는 맑은 하늘이 애운을 굽어살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애운이 물에 빠졌으나 구출될 것임을 짐작케 한다. 그리고 ㉡은 낭자가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이것은 유 부인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케 한다. 따라서 ㉠과 ㉡ 모두 독자로 하여금 뒤이어 일어날 사건을 짐작케 하고 있다.

**[38 ~ 42] (갈래 복합) (가) 이홍유, '산민육가' (나) 작자 미상, '유산가' (다) 정비석, '산정무한'**

**(가) 이홍유, '산민육가'**

이 작품은 조선 중기 문인이자 교육자인 이홍유가 지은 연시조이다. 세속적 부귀영화를 추구하지 않고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삶의 만족감을 노래하고 있다.

**(나) 작자 미상, '유산가'**

조선 후기 한양과 경기 지방을 중심으로 불린 12잡가 중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봄의 아름다운 경치 완상과 유흥적 흥취를 노래한 작품이다. 잡가는 19세기 중반 이후 도시 유흥 공간을 중심으로 전문 가객들이 부른 노래의 총칭으로 서민 문화에 기원을 둔 노래에 시조, 가사, 민요 등이 섞여서 형성된 장르이다. 이 작품에는 우리말과 한자어가 혼용되고 있는데, 이는 작품의 향유 계층이 서민층뿐만 아니라 양반층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다) 정비석, '산정무한'**

이 글은 금강산을 유람하고 난 후의 여정, 견문, 감상을 유려한 문체로 서술하고 있는 기행 수필이다. 글쓴이는 여정과 감상을 후보식 구성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서경과 서정의 조화를 살리며 섬세한 필치로 멋과 교양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 글은 기행 수필의 일반적 차원을 넘어 서정시와 같은 정서를 느끼게 하며, 기행 수필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은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문의 내용은 '황천 계곡, 연화담과 수렴폭, 망군대, 마하연, 마하연 여사' 등의 여정과 감상을 드러낸 부분으로, 특히 단풍과의 물아일체를 드러낸 부분은 다양한 수사법과 화려한 문체를 통해 개성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38.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 방식을 이해한다.**

(나)와 (다)는 은유법과 직유법 같은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봄의 아름다운 경치에 대한 흥취나 금강산의 절경에 대한 예찬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즉 대상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나)는 '팔팔, 주루루룩, 쌀쌀' 등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높이고 있으나, (가)에는 음성상징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② (가)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나)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지향하는 가치를 밝히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③ (가)와 (다)에서 어휘의 반복은 확인할 수 있으나 움직임이나 나타내는 어휘를 반복하는 것은 아니고, (가)의 경우 대상의 역동적 측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나)와 (다)에 어조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39.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를 이해한다.**

㉠은 마하연의 여사가 산중에 있어 여행객 외에는 찾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을 나타낸 구절이다. (다)에서 마하연의 여사가 퇴락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십장 흥진'은 혼잡한 속세를 의미한다. 그것이 가려져 차단되었다는 것은 화자가 속세와 거리를 둔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다. ② '벗님네'에게 '산천경개를 구경을 가세.'라고 권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산천경개'는 봄의 아름다운 경치를 의미한다. ③ '만산 흥록'은 온 산에 꽃이 활짝 핀 상황을 나타

낸 것으로, '춘색'으로 제시된 봄의 계절감을 부각하고 있다. ④ 단풍으로 물든 산속을 걸어가며 단풍과 하나가 된 심정을 제시하고 있다.

**40.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통해 작품을 감상한다.**

(가)의 '조그만 이 내 몸'은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화자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한 것이다. 즉 (가)의 화자는 자연에 이미 귀의한 상황이므로, '조그만 이 내 몸'을 자연 속에서 심리적 위안이 필요한 속세에서의 화자의 모습으로 볼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① '공명부귀'는 화자가 관직에 올라 역량을 발휘하여 이를 수 있는 세속적 가치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화자가 '송죽'을 의인화하여 조화를 이루는 친밀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무릉도원'은 동양적 이상향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나)의 화자는 봄의 아름다운 경치를 이상향의 이미지와 연결시켜 이상적인 유희의 공간으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경계 무궁 줄을씨고'는 화자가 아름다운 풍광에 대해 감각적으로 느낀 흥을 드러내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41.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파악한다.**

글쓴이는 망군대 등정 과정과 망군대에서의 조망과 관련해 여정이나 '삼백 단'의 사닥다리와 '해발 오천척' 같은 객관적 사실과 '한사코 기어오르는', '일망무제로 탁 트인다.', '아! 천하는 이렇게도 광활하고 웅장하고 숭엄하던가!' 등의 소감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마하연 여사에서 과거를 회상하고 있으나, 여정을 계속하려는 이유는 제시하지 않았다. ② 글쓴이는 망군대에서 백마봉과 비로봉을 바라본 것이지, 백마봉에서 비로봉으로 이동한 것은 아니다. ③ 연화담과 수렴폭을 둘러볼 때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림 같은'이라는 비유로 볼 때 기상 상황이 좋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⑤ 마하연 여사에서 동행자인 문 형이 한 말인 "남포 등은 참말 오래간만인데."를 소개하고 있으나, 이것이 일행 사이의 갈등 해소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다)에 일행 사이의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42. [출제의도] 작품에 인용된 시의 효과를 파악한다.**

글쓴이가 두목(杜牧)의 한시 대신 영일(靈一)의 한시를 인용한 이유는 마하연사에서 느낀 분위기와 그곳에 노승이 많다는 인상을 전달하는데 더 적합하다고 느껴서임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다)에 글쓴이가 마하연사에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선원'이라는 표현을 통해 마하연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절인지는 알 수 있으나, (다)에 마하연사의 유래는 나타나지 않는다. ④ (다)에 글쓴이가 마하연사를 방문하는 데에 고생이 많았다는 점을 알리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불경 공부하는 승려뿐이라고 한다.'를 통해 종교적 교리를 익히기 위해 애쓰는 승려들이 있는 절임을 알 수 있다.

**[43 ~ 45] (현대시) (가) 광재구, '구두 한 켤레의 시', (나) 문태준, '극빈'**

**(가) 광재구, '구두 한 켤레의 시'**

낡은 '구두'를 신고 고향에 다녀온 화자의 감정을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구두'가 낡도록 아마도 바쁘게 살았을 화자는, 그동안 고향을 돌아보지 않고 무심하게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있다. 특히 마지막 시행은 '구두가 들려주는 저문 고향의 강물소리'를 음성 상징어로 표현하여 화자의 울림을 드러내고 있다.

**(나) 문태준, '극빈'**

농사를 지은 '열무밭'이 화자의 의도와 달리 '열무꽃밭'이 된 시적 상황을 제시하고, 그곳에 '나비 떼'가 내려앉아 쉬어 가는 모습을 통해 타인을 배려하는 삶의 태도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에게는 짧은 시간이 '나비 떼'에게는 편안한 휴식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자신의 인생에서 '밭 딛고 쉬라고 내줄 곳'과 '선잠 들라고 내준 무릎'이 없었음에 대한 성찰로 나아가고 있다.

**43.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을 파악한다.**

(가)에서는 '겨울보리 파랗게 꽃힌 강둑', '썩골 상엿집 흰 눈 속' 등에서, (나)에서는 '흰 열무꽃', '흰 열무 꽃잎 같은 나비 떼' 등에서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44.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비교하여 감상한다.**

(가)는 오랜만에 들른 고향에 신고 갔던 '구두'를, (나)에서는 '열무꽃'에 앉은 '나비'의 모습을 통해 화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있다. [C]는 화자가 오랜만에 들른 고향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음을 드러낸 부분이다. 화자가 처한 냉혹한 현실을 드러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풀이]** ① [A]는 화자가 제대로 듣지 못한 '강물소리'를 '구두'는 듣고 왔음을 드러내는 부분으로, 화자가 '구두'를 통해 고향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B] 앞부분에서 '황혼', '뒤축의 꿈이 몇 번 수습되고', '터진 가슴의 어둠' 등의 표현을 통해 '구두'가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오늘의 부끄러운 촉수/사리 유채 꽃잎처럼 꿈틀댄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④ [D]에서 사람들의 질문은 '열무밭'에서 '열무'를 제대로 수확하지 않고 '열무꽃'이 핀 상황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그 대답을 '망설이던 화자는 '열무꽃'이 무용한 것이 아니라 '나비 떼'가 쉬어 가는 안식처가 되었다는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⑤ [E]에서 '밭 딛고 쉬라고 내줄 곳'과 '선잠 들라고 내준 무릎'은 타인에 대한 배려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화자는 배려의 태도가 없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성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5.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를 파악한다.**

(나)에서 '가까스로'는 '열무' 농사에서 본래 얻어야 할 '뿌리'나 '줄기'를 모두 놓치고 겨우 '꽃'을 얻은 상황과 연결된다. '사람들'에게는 무용하거나 보잘것없는 것일 수도 있으나, '나비 떼'에게는 쉬어 가는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마지막 시행의 '비로소'는 이러한 화자의 인식의 전환과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본래의 의도가 실현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풀이]** ① '강물소리'를 표현한 음성 상징어인 '찰랑찰랑'이 '출렁출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시상 전개 과정에서 화자의 정서가 심화되었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② 화자가 신고 간 낡은 '구두'는 고향의 모습을 처음 본 것이지만, 화자에게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남아 있는 익숙한 고향일 것이다. 따라서 '초면'과 '구면'의 대비에는 고향에 대한 화자의 과거 경험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3초씩 5초씩'에 해당하는 시간을 화자는 '짧게 짧게'로 인식할 수 있지만, 나비들은 '느슨한' 시간으로 느낄 수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편편하게'는 '나비 떼'가 편안하게 앉아 있는 모습을, '설핏설핏'은 '선잠' 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열무꽃'은 화자가 의도한 상황이 아니지만 '나비 떼'에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